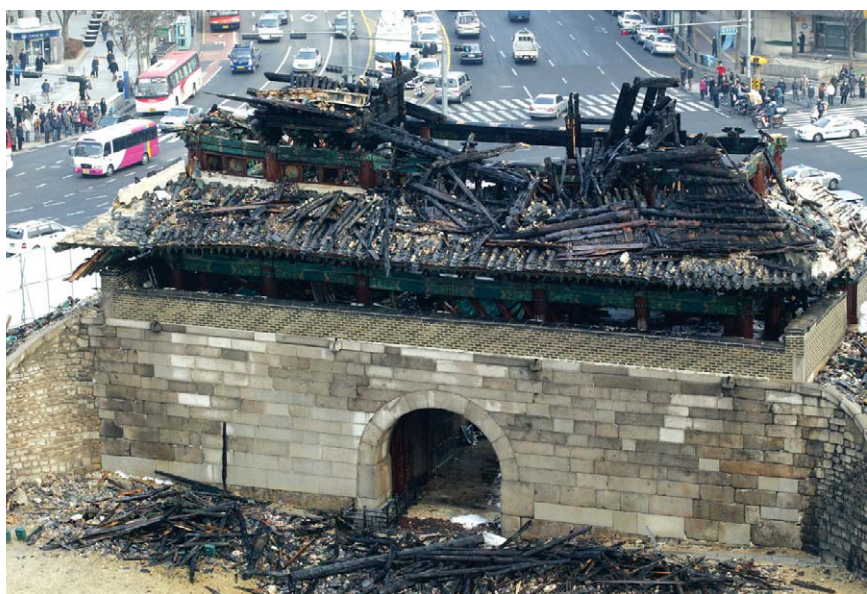


**집중기획-국보1호 승례문 전소**  
**사찰 목조문화재는 안전한가**

국보 1호 승례문이 2월 10일 오후 8시 50분 발생한 화재로 5시간여만에 전소됐다. 1394년(조선 태조 5년)부터 1398년까지 교박 5년이 걸려 지어진 승례문. 모진 풍상에도 곳곳이 수도 서울의 정문으로 600여년을 살았다. 승례문 화재로 "목조건축물 관리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국보·보물을 비롯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찰건축물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방재대책 허술...화재 무방비

해인사 등 4곳 제외 대다수 사찰 소화시설만 겨우 갖춰



2월 10일 발생한 화재로 국보1호 승례문이 소실됐다. 은 국민의 안타까움 속에 처참하게 타버린 국보1호(왼쪽사진)를 보며 사찰 목조건축물 화재 보호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김제 금산사는 2월 14일 사중 스님과 관내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 방재 훈련을 실시했다.



김제 금산사는 2월 14일 사중 스님과 관내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 방재 훈련을 실시했다.

전체 국보 407개중 목조건축물은 23개. 이중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무위사 극락전, 법주사 팔상전 등 절반이 넘는 13개가 사찰목조건축물이다. 보물은 전체 1482개중 목조건축물은 122개로 이중 사찰목조건축물은 67개다. 시도유형문화재는 전체 2105개 중 목조건축물 641개, 사찰목조건축물은 149개다.

1984년 화순 쌍봉사, 1986년 김제 금산사, 2005년 양양 낙산사, 2008년 고창 문수사 등 사찰에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피해는 국가적으로 사찰 목조건축물 방재 시스템 점검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해인사, 봉정사 등 4개 사찰에서 시범사업만이 진행 중이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찰은 사찰·종단·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으로 화재예방 및 방재시설 등을 잘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은 형식적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인사 대비로전의 경우 화재 발생시 자동 감지시스템에 의해 국내 최고(最古) 목조불인 비로자나불이 지하 6m 안전공간으로 하강해 위험요소로부터 자동격리 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해인사와 함께 사찰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무위사, 봉정사, 낙산사에는 권역별로 소화전이 설치되고 방화수림이 조성되는 등 방재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찰은 CCTV도 제대로 갖

추지 못한 채 소화기, 소화전 등 기본적인 소화설비만으로 형식적인 방재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도 A사찰처럼 소화기가 있어도 작동이 안되거나, 충북 B사찰처럼 범당 면적에 비해 소화기 대수와 용량이 부족한 곳도 있었다. 포항 C사찰은 소화전이 있어도 위치가 부적합했고, 호스가 체결이 안돼 화재시 무방비에 가까웠다. 이같은 현실은 사찰목조건축물에 대한 방재대책 마련이 예산 타령만 할 때가 아님을 대변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대책을 묻자 승례문 처마로 쏜던 불길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소방기념전환부터 정밀실사, 법령정비, 화재예방, 화재감지, 예산확보, 매뉴얼 마련 등.

2년 전 승례문 개방에 반대하며 전광대 설치를 제안했던 김동현 위원(문화재위원회, 前 동국대 교수)은 "일반인들 출입이 잦은 사찰 목조건축물은 승례문과 달리 접근을 차단해 보존할 수 없다. 일본 고야산이나 중국 자금성처럼 오직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방재 대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3면, 4면, 27면> 조동섭 기자

###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 불자 선수에 장학금 지원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이기홍)는 스포츠계 발전과 불자체육인 발굴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2월 20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국가대표를 비롯한 5명의 불자 선수들에게 총 7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체육인불자연합회는 매년 각 지역의 중·고등학교 체육인 중 생활이 어려운 불자 학생들을 발굴·지원해 왔다. 15개 광역시도 지부별 장학금 수여식은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 지부별로 진행된다.

한편, 체육인불자연합회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고 국가대표선수촌 및 북경 올림픽대회 경기장을 격려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여수령 기자

▲哀悼詩

### 승례문이 불타다니

—청화

저런!  
저런!  
저런!  
승례문이 불타다니.  
반만년  
우리의 숨결로 쌓아온 높은 탑  
와르르와르르 무너져  
승례문이 불타다니.  
무엇이나  
한날마른나무 토막처럼  
승례문을 태우는 저 불은.  
혹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하늘의  
해와 달을 가리우는  
우리들의 먹구름인 것이냐.  
꽃을 물고 날으는 학이 아니라  
도처에 깔 깔 깔  
땅을 뒤집는 패지소리 뿐이더냐  
아 저런! 저런! 저런!  
우리는 종도 없이  
승례문을 태우는 불.  
우리 조금씩 회상을 입고  
물을 마시며 불을 보자  
불이 온 곳을 보자.  
저것은  
오천년의 무수한 細筆로 그린  
이 나라 혼의 얼굴  
묵은 한지에 배인 불빛같은 얼굴  
아 그 얼굴  
승례문이 불타다니  
승례문이 불타다니.

<약력>  
1977년 불교신문,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당선.  
現 조계종 교육원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회 1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010-7504-4521 (양영화 변호사)  
017-5335-0685 (김기원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진 변호사)

### 허허당의 세상만사

새가 하늘을 날때 오직  
제 몸에 붙은 날개 하나뿐이듯이  
수행자가 지 할 곳은 오직  
제 몸에 붙은 등뿐 하나뿐이로다.

■ 획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등 승강 장치(등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부산 해운대 법문사 법당 만월등(주름등) 중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연등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